

인간과 환경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오늘처럼 다방면의 검토가 세계적으로 되어진 시대는 없었다.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한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생태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현대문명의 위기 요인이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지진, 이상기온, 이변 등)와 인재(체루노빌원전사고, 폐탄전쟁, 인도 보팔의 카바이트공장사고, 미국 로부카넬의 다이옥신 사고 등)로 인한 불안 속에 처해 있다. 천재와 인재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95. 7. 17) 삼풍붕괴사고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200여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미국의 시카고 지역의 죽음의 폭염피해 상황을 전해 들으며 오늘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의 생태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 된것은 생태계 파괴현상이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1970년대의 롬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으나 80년대까지 뒷전에 밀려 있던 환경문제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안전보장문제, 경제문제와 나란히 국제정치의 3대현안의 하나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오늘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문제는 현대인이 생태환경오염문제를 과연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21세기야 말로 생명탄생 이후의 최대 위기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II. 생태환경 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들이 지구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른 첫째 잘못은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에서 더욱 그래왔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둘째 잘못은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모든 세대의 거처이기도한 생태계를 현세대인이 그들만의 것인양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부터 신탁 받은 것이다.”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공동미래”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 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빈곤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세대인이 저지르고 있는 셋째 잘못은 인간이 소모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롬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가는 자연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지금과 같이 물질 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세대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넷째 잘못은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70년대의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의 독성과 물량은 지구의 자정능력이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강하고 많기 때문이다.

III. 해결책은 무엇인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환경회의와 1992년 리우에서의 환경과개발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CFC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계획들이 세워지며 인류복지를 위한 지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이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그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과 “각국가 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데서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은 첨예하게 교착되어 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지역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환경문제가 누적되어 지구환경문제를 대두시킨 것으로 보면 문제의 근원은 하나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구환경보전운동의 표어가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오늘날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생활을 각기 제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소비수준, 인구증가, 과학기술,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세대인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 분별없는 소비미덕에 터잡은 사회풍조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및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편리함과 풍요함을 선호해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의 생활수준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무너져 탄생문제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우리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 대해 환경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활용, 물의절약 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등의 소비를 주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생활수준을 자율적으로 깎는 일이 쉽지 않는데 있다.

우리 모두는 생태계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연농산물직거래운동, 음식물찌꺼기퇴비화운동등 친환경적

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어 우리사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IV. 생명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환경운동가인 바바라 워드는 1972년 유엔의 인간과 환경회의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윤리성으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의 근본을 다시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관리하는 일과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인류의 운명에 관한 우리의 책임을 왜면 하고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호소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보다 먼저 교회가 생명공동체운동을 앞장섰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의 활동으로 「생명문화운동」 전개에 참여한바 있다. 한국교회가 함께 이룩한 노력으로는 1992년 “환경의날”을 맞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교회협의회환경위원회등이 공동으로 환경주일을 선포하고 「'92 한국기독교교회환경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생명존중의 가치관 확립, 검소한 생활운동 확장, 일회용품 편의주의 배격, 친환경적인 생활지침수립과 실천 국내외 환경보전운동단체와 연대, 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등 교회집회에서 환경문제 교육및 이를 위한 운동전개, 반공해운동 적극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목회의 형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녀의 역할을 교회에 담당해야 할것이다.

어떤 기관의 환경관련분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인 문제로 환경문제(73.5%)를 압도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사에서도 환경문제(일반국민 88.3% 여론주도층 92.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빈부문제(68.9%와 67.3%)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어서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일반 88.5% 여론94.8%)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일반 86.1%)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불편과 비용부담이 따르게 마련인 실천에 있어서도 과연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을 가진다. 소비사회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현존하고 있는 조직체 중에서는 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같은 신앙으로 뭉쳐진 조직이며 주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다.

V. 맺는말: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광복 50주년이 되는 동시에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1995년은 각별하다. 50주년은 낡은 것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킨다는 “희년”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는일도 간구하는 바이지만 하느님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로서 하느님과 인간사이, 인간과 인간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우리는 고대한다.

오늘의 지구환경 문제가 풀기 어렵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살펴보면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바로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데에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